

반도체 호조에도 넉달만에 수출 ↓…美 관세 충격 본격화

5월 수출 1.3% 감소한 572.7억弗…美中 수출 감소
반도체 수출은 21.2% 증가…5월 중 역대 최대 실적
車·철강·석화 등 15대 품목 중 10개 품목 수출 줄어
무역흑자 69.4억弗…수출보다 수입 감소폭이 더 커

반도체 수출이 역대 5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호조세를 보였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충격으로 자동차와 석유화학 등 15대 품목 중 10개 품목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4개월만에 수출이 감소했다. 수출 양대 시장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 모두 감소하면서 통상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 타격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무역수지는 수입이 수출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4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근거가 된 대미 무역수지 역시 계속해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함께 추경을 통해 확보한 통상 대응 예산을 집행해 타격을 최소화겠다는 방침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572억7000만 달러(79조2502억원), 수입은 5.3% 감소한 503억3000만 달러(69조 6467억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업일을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 증가한 26억6000만 달러를 기록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에는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반도체·무선통신기기·컴퓨터·선박·바이오헬스 등 5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21.2% 증가한 13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5월 수출 실적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HBM·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제품의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메모리 가격상승 기대에 따른 재고 확보 움직임의 영향이 컸다. 고장가격 역시 DDR4는 1.65달러에서 2.1달러로, DDR5는 4.6달러에서 4.8달러로 올랐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휴대폰 부품 수출이 소폭 감소했으나 30% 증가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지속돼 전년 대비 3.9% 증가한 13억 달러를 기록했다. 컴퓨터 수출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11억 달러를 기록해 플러스 전환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서버용 고용량 SSD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한 덕을 봤다. 바이오헬스 수출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시장에서 신규 품목허가가 확대되고 CMO 수주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4개월 연속 증가한 14억 달러를 기록했다. 선박 수출도 22억3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0개 품목에서는 수출이 감소했다. 자동차 수출은 6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대비 4.4% 감소했다. EU로의 전기차 수출 호조와 중고차 수출이 호실적을 기록했으나 미국 품목별 관세의 영향으로 미국 현지 생산이 확대되면서 미국

으로의 수출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 컸다. 미국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철강 수출도 단가 약세가 지속되고 글로벌 건설경기 위축 등에 따라 수요도 감소하면서 12.4% 감소한 26억 달러를 기록했다.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유가가 10% 이상 떨어지면서 석유제품 가격과 석유화학 수출 단가가 떨어진 영향을 받아 일제히 감소했다. 석유제품 수출은 전년 대비 20.9% 감소한 35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석유화학 수출은 전년 대비 20.8% 감소한 32억4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차전지는 광물가격 하락세와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가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18.4% 감소한 5억2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탄산리튬 가격은 지난해 5월 킬로그램(kg)당 105.2 중국인민폐(RMB)였으나 지난달에는 kg당 61.8RMB로 감소했고 니켈 가격 역시 지난해 5월에는 톤당 1만9520달러였으나 지난달에는 톤당 1만5334달러로 떨어졌다. 디스플레이 수출은 IT전방산업의 신제품 출시 등 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입처가 밀집된 아세안의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13억4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18% 줄었다. 일반기계 수출 역시 미국 관세 조치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및 투자 위축 등으로 인해 수요 감소가 지속되면서 5.3% 감소한 40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자동차 부품(-9.4%)·섬유(-11.4%)·가전(-14.9%) 등 품목도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면서 수출이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5월에는 9대 주요시장 중 7개 지역으로의 수출이 감소했다. 우선 양대 수출 시장인 대중국·미국 수출

이 감소했다.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4% 감소한 104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14.6% 감소하고 석유화학 수출 역시 생산설비 점검에 따른 수요 감소로 11.4% 감소했기 때문이다. 대미국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8.1% 감소한 100억5000만 달러로 줄었다. 미국 내 정제시설이 줄어 수요가 늘어난 석유제품을 포함해 이차전지 등 품목에서 수출이 늘어났으나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이 관세 조치 영향으로 미국 현지 생산이 본격화하며 32% 줄어들었다. 반도체 수출 역시 지난 1분기 선구마로 인해 재고가 총분해 17.6% 감소했다. 아세안으로의 수출의 경우 전자기기 시장 성장과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수출이 47.2%나 늘었으나 석유제품·석유화학 수출이 각각 44.4%와 27.3% 감소했다. 이외에도 디스플레이(-24.5%) 등 대부분 품목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체 수출은 1.3% 감소한 100억1000만 달러였다. 다만 EU로의 수출은 선박·일반기계 수출이 각각 5.3%, 13.3% 감소하며 다소 부진했으나 자동차·반도체 수출이 각각 37.6%, 11.1%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은 4% 증가한 60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5월 기준 대EU 수출 역대 최대 실적이다. 5월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5.3% 감소한 503억3000만 달러로 에너지 수입과 비에너지 수입 모두 감소했다. 에너지 수입은 에너지 수입은 원유(-14%), 가스(-0.3%) 수입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12.8% 감소한 100억 달러 수준이었다. 국제유가는 지난해 5월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84달러 수준이었으나 지난달에는 63.7

달러로 약 24.2% 감소했다. 비에너지 수입은 반도체장비(11.4%)나 컴퓨터(41.2%) 수입이 늘었으나 전자기(-8.2%), 자동차부품(-4.8%) 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3.2% 감소한 402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수출과 수입이 동반 하락하면서 69억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0억5000만 달러 증가한 수치다. 이에 올해 누적 무역수지는 189억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흑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2억5000만 달러 증가했다. 특히 대미 무역수지는 여전히 지난달 32억 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올해 누적 무역수지 역시 211억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결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 양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며 “최근 미국의 관세 조치가 세계 경제 및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5월에는 국제 유가가 60달러 초반까지 하락하면서 석유제품·석유화학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0% 급감해 전체 수출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정부에 우리 측 입장을 정확히 전달해 관세조치 관련 상호 호혜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추경을 통해 편성된 약 2300억원 규모의 관세대응 예산을 신속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변용일 기자

광주상의, ‘기업-청년 이음프로젝트’ 추진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는 지역 가전기업의 기술 혁신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 인재와 함께 하는 ‘가전 넥스트(NEXT): 기업-청년 이음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달 29일 밝혔다. 이음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와 광주광역시 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지역혁신프로젝트의 세부사업이다. 지역 가전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청년 고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 사업은 광주지역 가전기업이 실제 겪고 있는 연구개발(R&D) 및 마케팅 과제를 청년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실천형 일 경험 프로그램이다. 청년에게 직무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기업에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혁신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참여 청년들은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을 통해 약 5개월간 R&D 또는 마케팅 분야의 전문 직무교육을 이수한 뒤 실제 기업에 제

시한 과제를 수행한다. 참여 기업은 신제품 개발, 기술 고도화, 시장 분석, 디지털 홍보 등 자사 현안을 기반으로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과 실질적 협업이 가능하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기업 입장에서 최신 트렌드와 청년 인재의 시각을 반영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확보할 수 있으며 청년들에게는 지역 기업의 실제 현안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서 “R&D와 마케팅 분야의 과제를 보유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상의는 이음프로젝트에 참여할 가전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모집 중이다. 마케팅 기획, 제품 홍보, 콘텐츠 제작,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여수세계섬박람회 붐업…전남도, 섬 밤바다 크루즈 운항

금오도·나로도·거문도·백도 등 1박 2일 4회 운항 1100명 이용



전남도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붐업을 위해 금오도, 나로도, 거문도, 백도 등 아름다운 전남 섬 경관과 밤바다의 별과 달을 보고 백도에서 일출을 즐기는 섬 밤바다 크루즈를 시범 운항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도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진행한 섬 밤바다 크루즈 시범 운항은 지난 23일부터 내달 1일까지 기간 중 1박2일 코스로 총 4차례 진행 중이다.

섬 크루즈에 대한 관심 증가로 탑승권이 조기 매진고 1100여명의 이용객이 금·토요일 오후 3시 여수에서 출발해 다음 날 11시까지 금오도와 나로도, 거문도, 백도 등 전남의 섬을 항해했다. 첫째날에는 금오도, 안도, 연도, 나로도, 손죽도, 거문도 등 다도해 섬 경관과 함께 바다 한 가운데서 맞는 노을, 여수 밤바다의 아름다운 야경과 별밤 감상, 불꽃놀이, 선상공연, 디너뷔

페, 오션뷰 객실 등 각종 크루즈 서비스가 만족도를 높였다. 둘째날에는 거문도를 출발해 해돋이 포인트로 이동, 다도해 일출을 감상한 뒤 여수신항으로 귀항하는 여정이이다. 크루즈선은 2만2000t급 ‘팬스타드림호’다. 총 115개 객실을 비롯해 편의점, 사우나, 마사지룸, 노래방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이번 섬 밤바다 크루즈는 전남 사랑에서 서포터즈를 포함한 도민에게 20% 할인, 가정의달을 맞아 아동보육시설, 한부모가족 등 도내 취약계층 100여명에게 무료 승선 체험으로 나눔을 실천하기도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크루즈 투어를 통해 전남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여수세계섬박람회와 다도의 아름다운 섬을 알리는 기회가 됐다”며 “전남 섬 밤바다 크루즈 여행은 전남 해양관광산업의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이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번 시범운항 설문조사와 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기간 중 섬을 주제로 한 새로운 크루즈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동부채재본부

전남도, 친환경농산물 알선센터 운영

9월까지 판로 미확보·계약재배 후 납품 어려워진 농가 대상



전남도가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와 함께 9월30일까지 넉 달간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산물 구매알선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구매알선센터는 농가의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보의 어려움과 유통업체의 생산 정보 부족에 따른 시기별 물량 확보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나주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에 입주했고, 벼와 보리 등을 제외한 과수·

채소류 36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 중 판로가 확보되지 않은 농가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계약재배를 했으나 공급처 상황 변화로 납품이 어렵게 됐을 때도 긴급 구매알선을 신청할 수 있다. 과수는 9월 이후 수확하는 작물을, 채소류는 6월 이후 파종이나 정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품목별로 물류센터에서 구매가 결정되면 센터에서 매주 1~2회 해당 시군을 방문해 수거할 계획이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알선센터 운영을 통해 농업인이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송준표 기자

‘영끌’·‘빚투’에 가계대출 들썩 4.2조 ↑…신용대출 1조 폭증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지난달 4조 넘게 늘어

5월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4조원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하에 오는 7월 도입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두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빚투(빚내 투자)’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29일 기준 747조2956억원으로 4월 말(743조848억원) 대비 4조2108억원 증가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 3월 1조7992억원 증가했으나, 4월 4조5337억원 불어나더니 두 달 연속 4조원이 넘는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

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92조5827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1527억원 증가했다. 신용대출 잔액은 103조5746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815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 2021년 7월(1조 8636억원)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신용대출은 코로나19 이후 초저금리 속 ‘빚투’ 열풍이 일었던 2020~2021년에는 몸집을 키웠다가, 2022년부터는 주로 감소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올 3월 3527억원, 4월 8868억원, 지난달 1조815억원 불어나는 등 증가세가 다시 커지기 시작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으로 촉발된

가계대출 증가세가 금리인하를 비롯해 7월 도입되는 3단계 DSR 규제 등과 맞물려 불붙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각 은행에서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쏠리면서 하루 신청 건수가 조기 마감되는 ‘오픈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DSR 규제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대출을 미리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리고 있는 영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규제를 앞두고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금리인하 등으로 대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단계 DSR이 시행되면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기존 대비 1000~3000만원 가량 감소하게 된다.

서선욱 기자